

LG화학, 환경안전 개선활동 활발?

LG정유 · 유한킴벌리, 전경련 지속가능발전 기업경영 우수사례 꼽혀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최근 LG-Caltex정유, LG화학, 유한킴벌리 등 3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LG화학은 화학산업계의 자발적 환경·안전·보건 개선프로그램인 <Responsible Care>를 모든 사업활동 부문에서 자연과 인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LG화학의 의지를 담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한 점을 인정받았다.

LG화학은 국내 RC 도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로 적극 참여했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RC를 도입해 추진하게 됐다. RC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전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안전팀장만으로 구성돼 있던 <전사 환경안전위원회>를 <전사 RC 위원회>로 개칭하고 본사의 4개 사업본부 전략기획팀장과 지원부문의 경영전략팀장, 홍보팀장도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RC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 RC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자체평가 Checklist를 추가·보완해 각 사업장이 11RC 자체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LG화학의 RC 활동의 성과는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1995년을 환경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폐수, 폐기물, 대기 부문의 개선활동을 추진한 결과, 배출원단위 50% 감축이라는 1999년까지의 1단계 목표를 달성했으며, 2단계 목표로 2006년까지 폐수 배출원단위 50%, 폐기물 배출원단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원료대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 분기별로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 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환경안전선언문 제정 >환경방침 설정 >환경관련 국내외 인증취득 >환경친화기업 3년 연속 지정 및 환경경영진단 실시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생산공정을 위해 LDAR(Leak/Detection & Repair)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LDAR 시스템은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이 누출될 수 있는 펌프, 밸브 및 배관 연결부 등의 장치에 대해 VOC 누출여부를 측정·분석하고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VOC 배출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LG-Caltex정유는 2000년 6월 여수 방향족 제1공장을 시작으로 약 3년 동안에 걸쳐 11억5000만원을 투자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03년 1월 말 전 공장에 LDAR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스템 운영에는 한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측정과 정비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측정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LDAR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사내 정유5팀 지역에서 VOC 배출량이 약 72.7% 정도 절감된 것을 비롯해 공장 전체적으로 평균 54.5% 정도의 VOC 배출량이 저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1970년 창립 이래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노력해 온 점이 모범이 되고 있다.

환경경영, 종업원의 안전과 성장, 좋은 품질, 성실한 납세, 공정한 거래,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실천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노력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익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위생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업 사명과 상통하며, 이에 따라 1990년 1억원에 그쳤던 순이익도 2002년 844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6>